

한국판 수치심 경험 척도(K-ESS)의 타당화 연구

신 재 은 김 설 민 전 미 유
박 두 흠 유 승 호 하 지 현 유 재 학[†]

건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수치심 경험 척도(Experience of Shame Scale)를 번안하고 한국판 ESS(이하 K-ESS)의 요인구조, 신뢰도 및 타당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총 200명을 대상으로 K-ESS를 포함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1개 문항에서 4개의 하위 요인을 가진 요인구조가 확인되었다. 4개의 요인은 각각 '성격적 수치심', '신체적 수치심', '실패 경험 수치심', '행동적 수치심'으로 명명하였으며 척도 총 변량의 53.63%를 설명하였다. 새로운 표본 248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중상관지수가 .40 이하인 3개의 문항을 제거한 후 모델의 적합 지수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8개 문항을 최종으로 확정하였고 내적 신뢰도는 .89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K-ESS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상태 수치심 및 죄책감 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역상관이 예측되는 자존감 척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수렴 타당도가 양호하였다. 또한 수치심 경험 척도와 우울, 불안 척도의 유의미한 상관이 도출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의와 추후의 연구 방향에 대한 제안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수치심, 수치심 경험 척도, 신뢰도, 타당도, 요인분석

[†] 교신저자 : 유재학, 건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43-7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
Tel : 02-2030-7566, E-mail : drjaehakyu@yahoo.co.kr

수치심(shame)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이자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정서이다. 최근 중독, 학대 및 섭식과 관련한 병리적 증후군에 관심이 높아지고 수치심이 이러한 장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밝혀짐으로써 수치심이 많은 심리학적 연구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아울러 치료적 접근에 있어 수치심을 새로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손은정, 2007; Kaufman, 1989).

수치심은 발달적으로 뿌리 깊은 정서로 그 기저에는 유아기,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로부터 오는 무의식적 요소를 포함한다(Broucek, 1982; Ferguson, Stegge, & Damhuis, 1991). 수치심 정서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외상이나 고통스러운 기억에 환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Mann, 2010). 아울러 수치심은 “자기애”의 핵심 정서 중 하나로 자기애 성향을 보이는 내담자 혹은 환자들의 수치심 및 이 정서와 관련된 좌절, 두려움 등을 탐색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박경순, 2011).

수치심에 대한 과거 연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Freud는 수치심을 도덕성과 함께 성격형을 억압하는 원인으로 보았으며 하나의 방어기능으로 간주했다(Freud, 1905). Adler(1933)의 열등감에 대한 연구는 수치심과 관련한 현상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Adler의 열등감 개념은 성격 발달에 수치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에 대한 첫 번째 시도였다. 자기 심리학적 입장에서 Kohut(1971)은 초기에 수치심을 자기애적인 자기(narcissistic self)의 노출 욕구에 대한 좌절로 보았으며 이후에는 유아적인 욕구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수치심을 느낀다고 설명하였다. Lewis(1971)는 수치심이 자기(self)와 관

련해 자기 평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형적으로 쓸모없고 힘을 상실했다는 지각에 의해 매우 위축되고 “작아지는 느낌”을 인식하는 고통스러운 정서 경험이라고 보았다. 이는 개인의 내부에서 불편감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정서이자 전체 자기(entire self)가 문제시 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Lansky 또한 손상된 자기 경험(self experience)의 결과로 수치심이 나타난다고 하였다(Lansky, 1999). 이러한 자기 손상적이고 고통스러운 정서는 인간의 사고, 기분, 행동, 성취, 사회적 적응 등을 동기화하고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Campos, 1995; Fischer & Tangney, 1995).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수치심은 다양한 정신 병리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수치심은 우울증(Kim, Thidodeau, & Jorgensen, 2011), 불안장애에 속하는 사회 불안 장애, 범불안장애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며 PTSD와 심리적 학대 간의 매개변인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Fergus, Valentiner, McGrath, & Jencius, 2010; Street & Arias, 2001). 또한 열등감, 무력감을 수반하며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느끼고 타인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을 야기해 대인 관계의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Tangney, Burgharaf, & Wagner, 1995; Tangney, Miller, Flicker, & Barlow, 1996).

이와 같이 정신 병리적 상태에 있어 수치심의 역할과 영향력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수치심이 다른 정서들과 임의적인 경계를 지니며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측정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치심과 유사한 정서의 예로는 죄책감(guilty), 수줍음(shyness), 당황(embarrassment), 창피함(humiliation), 모욕감(mortification), 초라함(indignity) 등이 포함

된다. 이에 수치심을 수치심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다른 구성개념과 구분하는 것이 개념 이해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치심과 죄책감(guilt)을 구분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송수민, 2008). Piers와 Singer(1953/1971)에 따르면 죄책감은 가해 사건을 수반하며 내적 위협은 일종의 처벌이라고 보았다. 반면 수치심은 실패를 수반하며 유기(abandonment)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자아와 자아 이상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긴장으로 개념화하였다.

개념 구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와 방법들이 그간 꾸준히 개발되어 왔으며 실시와 채점이 간편하고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질문지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기존에 국내에서 수치심 연구에 사용되는 질문지들을 살펴보면 Cook(2001)의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이하 ISS)가 타당화되었으며(이인숙, 최해림, 2005), 수치심 및 죄책감 상태를 측정하는 Marschall, Sanfter 와 Tangney(1994)가 고안한 상태 수치심 및 죄책감 척도(State Shame and Guilt Scale: 이하 SSGS)가 변안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ISS로 측정된 수치심은 낮은 자기 존중감(low self-esteem) 사이의 변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Tangney, 1996), SSGS는 상대적 수치심을 측정하지만 수치심과 죄책감의 이요인 구조가 표집에 따라 단일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수치심의 구성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국내에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외에도 자의식적 정서 척도(Test of Self-Conscious Affect: 이하 TOSCA)는 가상의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여 상상하도록 한 다음 수치심/죄책감 경험을 자신

이 어떻게 느끼는지 상황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데, 제시되는 시나리오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Tangney, Wagner, & Gramzow, 1989). TOSCA의 경우 수치심의 다양한 경험 보다는 자기 비난에 가까운 반응이 제시된다는 의견이 있다(남기숙, 조선미, 이훈진, 2005).

Andrews, Qian과 Valentin(2002)이 개발한 수치심 경험 척도(Experience of Shame Scale: 이하 ESS)는 인터뷰 방식에 기반해 개인의 수치심 경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한다. ESS는 성격적 수치심, 행동적 수치심 및 신체적 수치심으로 요인을 구분하며 개인이 어떤 영역에서 보다 강하게 수치심을 경험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다.

Andrews 등(2002)의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험이 우울 증상을 예측하는지 ESS를 활용해 종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수치심 경험이 우울 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고 밝힌 바 있다. ESS를 활용한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 부모-자녀 관계와 우울 증상간의 관계에 있어 자기 비난과 수치심이 매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Sandquist, Grenyer, & Caputi, 200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치심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정서로 자기 개념, 낮은 삶의 질, 자존감, 분노 및 적대감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Rüsch et al., 2007).

정신 병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수치심 경험을 밝히는데 있어 ESS가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ESS를 정신 병리와 심리적 부적응에 있어 수치심 경험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보고 새로운 척도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조효진(2008) 및 남기숙 등(2005)의 연구에서 ESS 척도를 변안해 사용한 바 있으나 이 척도를 타당화한 연구는 없

어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ESS를 번안하고 타당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수치심 경험 척도(Korea Version of Experience of Shame Scale: 이하 K-ESS)의 신뢰도, 타당도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문화, 교육 등 여러 면에서 서구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치심 경험 양상과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경험적 수치심에 관한 연구가 적으므로 우선 탐색적 접근을 통해 어떻게 요인이 구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구조의 확인, 각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와 재검사를 통한 신뢰도 검증을 통해 K-ESS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치심 척도인 ISS와 SSGS, 수치심과 역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Rosenberg 자존감 척도와 의 상관 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과 더불어 불안, 우울 척도 등을 통해 여타 임상적 증상과 관련성 탐색을 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실시하였다. 일부 문항에서 결측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총 20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각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척도의 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해 30명의 참여자가 8주 후 동일한 설문지를 재시행 하였다. 참여

자는 남학생이 81명, 여학생이 119명이었으며 대학생이 22%, 대학원생은 78%였고 표본의 평균 연령은 26.69세($SD=4.1$)였다.

측정 도구

한국판 수치심 경험 척도(Korea Version of Experience of Shame Scale: 이하 K-ESS)

원 저자에게 번안 및 타당화에 대한 동의를 구해 Andrews 등(2002)이 개발한 수치심 경험 척도(ESS)를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임상심리전문가 1인, 임상심리전문가 3년차 수련중인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 학위 소지자 1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논의를 통해 1차 번역본을 구성하였다. 이중 언어자가 역 번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차 번역본을 구성하고 검토를 거쳐 최종 번역 안을 확정하였다. Andrews 등(2002)이 개발한 ESS 척도는 총 25 문항, 4점 척도로 25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 경험이 많음을 나타낸다. “자신의 개인적인 습관에 대해 수치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수치스러움을 느낍니까?”, “자신의 신체 혹은 특정 부분에 대하여 수치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성격적 수치심(12문항), 행동적 수치심(9문항), 신체적 수치심(4문항)으로 요인이 구성된다고 보았다. 원저자(Andrews et al., 2002)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92였다. 본 연구에서 총점 평균은 48.34($SD=10.87$; *score range*: 25-82), 25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92였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이하 ISS)

Cook(2001)이 개발한 ISS의 제5판 원문을 이

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SS는 개인의 자기(self)안으로 내면화된, 자기를 향한 강한 부정적 정서로서의 수치심을 측정하며 “나는 내 자신이 매우 작고 보잘것 없이 느껴진다.” 등의 문항을 포함해 총 30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30점에서 15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된 Rosenberg 자존감 척도의 6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24개 문항의 합계로 측정되었으며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93,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92였다.

상태 수치심 및 죄책감 척도(State Shame and Guilt Scale: 이하 SSGS)

Marshall 등(1994)이 고안한 SSGS를 임은지(201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SSGS는 “지금 이 순간에” 느껴지는 수치심, 죄책감 경험에 대해 보고하는 척도로 “지금 나는 내가 가치 없다고 느낀다.”, “지금 나는 내가 저지른 나쁜 일이 계속 생각한다.” 등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10에서 5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90이었다.

한국판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 Esteem Scale: 이하 RSES)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RSES는 자기 개념의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는 척도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해 총 10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에서 4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89이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80이었다.

한국판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척도로 21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검사이며 0점에서 63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BDI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86이다.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이 개발하고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이 번안한 상태-특성 불안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40개의 문항으로 “나는 긴장되어 있다.”와 같이 “현재 어떻게 느끼는지” 측정하는 상태 불안 20문항과 “나는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을 한다.”처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측정하는 특성 불안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20점에서 80점의 점수 범위로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각각 .93, .85였다.

자료 분석

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SPSS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실시하였고, 요인의 회전은 사각회전 방식 중 하나인 프로맥스 사각회전방법(promax rotation)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AMO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결 과

K-ESS의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KMO 측도를 이용하여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문항에 의해 얼마나 잘 설명되는지 알아보았다. K-ESS의 KMO 측도값은 0.87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sphericity) 검정치는 2730.42($df=300$)였고, 이 값의 유의수준은 0.00이므로 요인분석이 가능한 공통요인이 존재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K-ESS의 하위요인 및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총점 간 상관이 0.40 이하로 낮게 나온 24번("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을 보는 것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남은 24개 문항을 대상으로 최대우도법과 프로맥스 사각회전방법($kappa=4$)을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회전하기 전의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요인은 6개였다. 그러나 요인부하량과 요인 당 문항수를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스크리 도표를 통해 고유값이 급격한 하락에서 완만한 하락으로 추세가 바뀌는 지점과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결과를 고려해 요인 수를 4개로 정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해보았다(O'Conner, 2000).

사각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 구조행렬과 패턴행렬로 나타나는데, 구조행렬은 각 요인이 각 문항에 대해 갖는 고유 변량과 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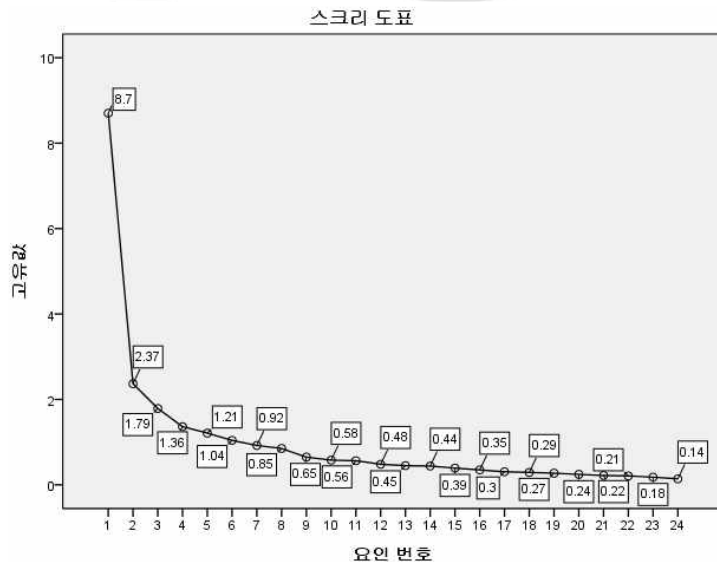


그림 1. K-ESS의 요인분석 스크리도표

량을 합친 값을 나타내는 반면, 패턴행렬은 각 요인의 고유변량만을 나타낸다(Nunnally & Bernstein, 1994). 따라서 대개 패턴행렬보다 구조행렬에서 요인 부하량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행렬 또는 패턴행렬에서 요인 부하량이 0.40 미만이거나, 둘 이상의 요인에서 0.30 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는 것은 문항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삭제하였다. 이에 14번 문항("당신이 잘못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15번 문항("자신이 했던 부끄러운 일을 숨기거나 감추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18번 문항("당신이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은 삭제되고 최종적으로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추출된 4개의 요인의 총 설명량은 53.63%였으며, 각 요인별 설명량을 살펴보면 제1요인이 26.00%로 가장 높았고, 제2요인이 9.63%, 제3요인이 12.00%, 제4요인은 6.00%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묶인 문항들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고, 각 요인에 대한 명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제1요인은 총 12문항으로 "당신의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개인적 습관을 감추거나 숨기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등을 포함하며, "성격적 수치심"이라고 명명하였다. 제2요인은 3문항으로 "자신의 신체 또는 신체 특정 부분을 숨기거나 감추길 원하는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신체 혹은 신체 특정 부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하여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를

포함하며, 이는 "신체적 수치심"이라고 명명하였다. 제3요인은 총 3문항으로 Andrews 등(2002)의 연구와는 달리 독립적인 요인으로 분리되어 "당신이 경쟁에서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경쟁에서 실패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실패한 것을 보았던 사람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의 문항을 포함하며 이를 "실패 경험 수치심"이라고 명명하였다. 제4요인은 총 3문항으로 "자신이 어리석은 말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어리석은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할 때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며, "행동적 수치심"이라고 명명하였다.

K-ESS의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기초하여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고정하고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운 표본(N=248)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자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08명, 여학생이 140명이었고, 표본의 평균 연령은 23.30세(SD=3.35)였다. 21개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과 측정변수의 설명량을 의미하는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가 성격적 수치심에 대한 2, 7, 11번 문항에서 .40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총 3개의 문항("당신의 개인적인 습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나 같은 유

표 1. K-ESS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요인부하량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6. 당신의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79	-.15	.12	-.11
4.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수치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75	.00	.08	-.18
3. 자신의 개인적인 습관을 감추거나 숨기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73	.07	-.12	.06
9.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70	.03	.03	.01
8. 자신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66	-.03	-.03	.09
5.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66	-.08	-.00	.13
2. 당신의 개인적인 습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66	.13	.02	-.10
1. 자신의 개인적인 습관에 대해 수치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65	.14	-.10	-.02
7. 나 같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수치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61	.02	-.14	-.00
12.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사람들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57	-.13	.09	.12
10. 자신의 능력에 대해 수치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48	.08	-.01	-.00
11.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45	.07	.08	.17
25. 자신의 신체 또는 신체 특정 부분을 숨기거나 감추길 원하는 적이 있습니까?	-.00	.89	-.05	-.00
22. 자신의 신체 혹은 신체 특정 부분에 대하여 수치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03	.84	-.03	.06
23.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하여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14	.64	.14	-.04
20. 당신이 경쟁에서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04	.04	.98	-.04
19. 자신이 경쟁에서 실패했을 때 수치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05	.02	.75	.03
21. 당신이 실패한 것을 보았던 사람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07	-.07	.56	.06
16. 자신이 어리석은 말을 했을 때 수치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05	-.02	-.07	1.03
17. 자신이 어리석은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03	.07	.19	.71
13.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수치스러움을 느낍니까?	.26	.01	.00	.41

형의 사람에 대해 수치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을 삭제하고 총 18개의 문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129, N=248) = 372.138, p < .001, CFI = .88, TLI = .86, RMR = .04, RMSEA = .087(90\% CI \{.077 - .98\})$ 로 나타났다. 홍세희(2000)에 의하면, 표본 크기에 영향을 덜 받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TLI가 대략 .90이상,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가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 하나의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R의 경우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수용할만한 적합도를 나타낸다(Byrne, 1998; Hu & Bentler, 1999). 본 결과에서 절대적 적합도 지수에 해당하는 RMR

이 좋은 적합도 수준에 해당하였지만 RMSEA는 보통 적합도 수준이었고 적합한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의 표본 수가 크지 않음을 감안해 표본 수에 영향을 덜 받는 상대적 적합도지수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CFI와 TLI는 .09에 비교적 근접한 수준에 해당하였다. 한국판 수치심 경험 척도의 4요인 구조는 대체로 수용할만한 수준임을 제시한다.

신뢰도 검증

한국판 수치심 경험 척도(K-ESS)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 일치도와 문항-총점 간 상관관을 산출하였다. 전체 척도의 Ch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18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9로 나타났으며 문항-총점 간 상관 계수는 .38 ~ .67의 범위에 있었다. 검사의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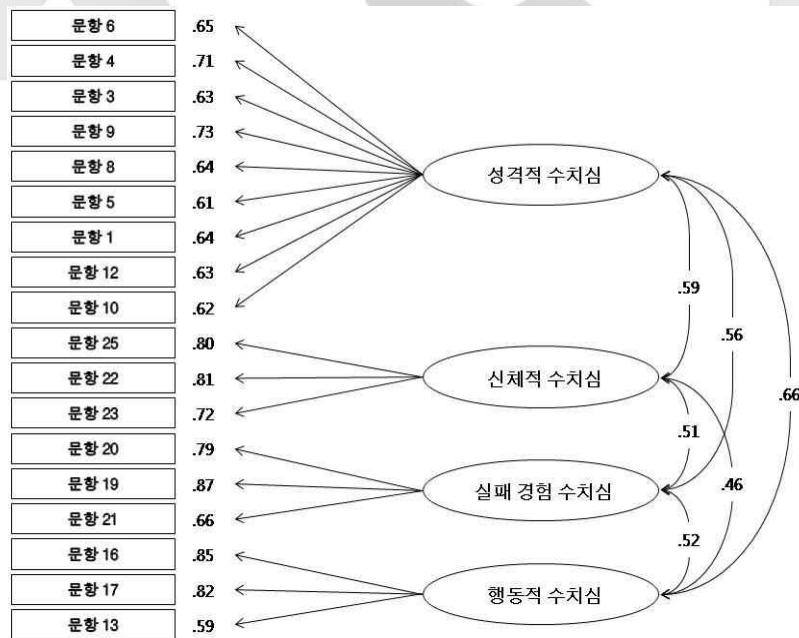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30명에게 동일한 검사를 8주 간격으로 두 번 실시하였으며 전체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r)는 .6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본 척도의 동질성과 안정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임이 입증되었다.

수렴 타당도

K-ESS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치심 척도인 ISS, SSGS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여타 심리적 특성들과의 상관을 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K-ESS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수치심 척도인 ISS($r = .69, p < .001$), SSGS($r = .49, p < .001$)와 양호한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수치심과 역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자존감 척도인 RSES($r = -.39, p < .001$)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K-ESS는 수치심 척도로서 수렴 타당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한편, 우울과 불안 정서를 특정적으로 평가하는 BDI($r = .46, p < .001$)와 STAI-I($r = .46, p < .001$), STAI-II($r = .47, p < .001$)와도 중등도 수준에 해당하는 정적 상관을 보여 K-ESS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볼 수

표 2. K-ESS와 관련 타당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K-ESS 총점
ISS	.69**
SSGS	.49**
RSES	-.39**
BDI	.46**
STAI-I	.46**
STAI-II	.47**

있다(Cohen, 1988).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험(Experience of Shame)을 측정하는 척도인 ES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집단을 대상으로 K-ESS의 요인구조, 신뢰도 및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K-ESS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총점 간 상관이 0.40 이하로 낮게 나온 문항과 요인 부하량이 0.40 미만이거나, 둘 이상의 요인에서 0.30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제외한 21개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4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요인1)은 개인적 습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 자신의 성격적 유형, 자신의 능력과 관련해 수치스러움을 경험하는지 묻는 성격적 수치심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요인(요인2)은 신체 혹은 신체 특정 부분, 외모와 같은 영역에서 수치심을 경험하는지 묻는 신체적 수치심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 요인(요인3)은 원 저자의 논문에서는 행동적 수치심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개별 요인으로 분리되었다. 독립적인 요인으로서 경쟁해서 실패했을 때 등의 수치심 경험에 대한 것으로 이는 대인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실패 경험이며 타인과 비교해 열등함을 느낀다는 점에 있어서 여타 문항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사람들이 경쟁에서 실패했을 때 수치심을 보다 민감하게 경험하며 이는 성취 지향적이고 결과를 중요시하며 서열과 경쟁을 특히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교육 환경과 문화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구난희, 2011). 이는 한국인의 수치심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 요인(요인4)은 행동적 수치심과 관련한 문항으로 잘못된 일을 할 때, 어리석은 말을 할 때 수치심 경험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4요인으로 고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중상관지수에서 3개의 문항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척도에서 제외되었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와 더불어 표본 수가 크지 않음을 감안해 표본 수의 영향을 덜 받는 상대적 적합도를 함께 고려하였고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모형의 적합도가 대체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제1요인은 9문항, 나머지 제2요인, 제3요인, 제4요인의 문항 수는 각각 3개씩으로 요인별 문항 수 차이가 크고 요인들의 가중치도 제1요인에 치우쳐져 있는데, 이러한 경우 요인별로 최대 문항 수를 고정하고 요인 부하량 크기 순서에 따라 문항을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원저자의 요인분석 결과와 유사하고 수치심 측정에 대한 원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한 척도를 만들고자 선정된 18문항을 최종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K-ESS의 내적 일치도는 .89이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도 .38에서 .67로 중간 이상의 강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기존의 사용되는 수치심 척도들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Andrews 등(2002)의 연구에 따르면 성격적 수치심 경험이 보다 광범위한 수치심을 반영하며 행동적 수치심과 신체적 수치심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수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구별되는 영역에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각 하위 수치심 경험 요인이 우울 증상의 발현과 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각 수치심 경험의 하위 요인 척도의 구분은 수치심 경험이 심리적 부적응에 어떤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K-ESS와 우울, 불안 척도와 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수치심 경험과 우울, 불안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도출되었다. 수치심 경험이 우울, 불안 뿐 아니라 여러 임상적 증상 및 정신 병리적 구성 개념과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들이 발표되어 왔다. 특히 정신분석에서는 수치심의 역동적 이해를 강조하면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와의 관련성을 연구해 왔다. Kohut(1971, 1972)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에 의해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적절한 반영과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경험되는 정서가 수치심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경우 자기의 과대함이 인정받지 못하고 건강한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자신의 욕구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며 자기애의 병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자기애적인 성격적 특성이나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에게 수치심과 자기애의 역동적 관련성을 이해하고 치료 장면에서 수치심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박경순, 2011). 박경순(2011)에 따르면, 청소년, 초기 성인기 환자들에게 기존의 DSM 진단기준에 맞지 않는 성격장애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부분이 자기애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들이 경제수준이 높아졌지만, 맞벌이나 핵가족, 입시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세대들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기애

의 초기 결핍에 관해 역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상기의 문제를 가진 개인을 약물 치료 및 단회기성의 면담으로 치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수치심은 초기의 결핍으로 인해 야기되는 원시적이고 일차적인 수준의 감정이며 내담자의 문제는 초기 아동기 경험과 대상 관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 장면에서는 이러한 정서의 심층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수치심에 대한 탐색을 통해 구체적이며 심층적인 치료적 가설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자는 내담자의 심리내적 갈등을 분석할 뿐 아니라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해 초기 양육으로 인해 결핍된 정신 내적 구조를 지지해주며 새로운 발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Sugarman, 1995; Willick, 1994).

수치심이 성격장애의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동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치료적 요소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비해 그동안 수치심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국내에 부재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수치심 경험 측정 도구를 타당화하여 임상적 활용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치료 장면에서 본 척도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수치심 경험에 대한 탐색과 평가, 치료적 접근 요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척도의 타당화를 위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수치심 경험 척도의 요인을 탐색한 의의가 있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대규모 집단과 임상 집단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이루어진다면 구성 타당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탐색적

연구로서 다양한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임상 집단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환자 군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준 마련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수치심 경험과 여러 정신병리 현상의 관련성에 대해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정을 통한 연구 또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난희 (2011). 新명문고 열풍으로 본 한국 교육 경쟁의 구조와 특징. *정신문화연구*, 34(3), 60-88.
- 남기숙, 조선미, 이훈진 (2005). 한국어 단어를 기초로 한 수치심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1063-1085.
- 박경순 (2011). 수치심(Shame)과 자기에의 정신 분석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889-907.
- 손은정 (2007). 공적 자기의식,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35-750.
- 송수민 (2008).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심리적 특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5-144.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 (ISS)의 타당화 연구-예측,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83-94.
- 임은지 (2010). 실패 후 성인의 귀인 양식에 따른 아동의 수치심 및 죄책감 상태와 행동 경향성.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효진 (2008). 수치심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인지적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논문집, 505-512.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dler, A. (1933).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inferiority feeling. In H. L. Ansbacher & R. R. Ansbacher (Eds.), *Superiority and social interest: A collection of Alfred Adler's later writings*. New York: Norton.
- Andrews, B., Qian, M., & Valentine. J. D. (2002).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s with a new measure of shame: The experience of shame scal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41, 29-42.
- Broucek, F. J. (1982). Shame and its relationship to early narcissistic develop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63, 369-378.
- Byrne, B. M. (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PRELIS and SIMPLI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ampos, J. J. (1995). Foreward. In J. P. Tangney & K. W. Fisc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pp. ix-xi). New York: Guilford.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Y: Multi Health System Inc.
- Fergus, T. A., Valentiner, D. P., McGrath, P. B., & Jencius, S. (2010). Shame and guilt proneness: Relationships with anxiety disorder symptoms in a clinical samp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 811-815.
- Ferguson, T. J., Stegge, H., & Damhuis, I. (1991). Children's understanding of guilt and shame. *Child Development*, 62(4), 827-839.
- Fischer, K. W., & Tangney, J. P. (1995). Self-conscious emotions and the affect revolution: Framework and overview. In J. P. Tangney & K. W. Fisc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pp. 3-24). New York: Guilford.
- Freud, S. (1905).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Standard Edition*, 7, 121-24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Kau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New

-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Kim, S., Thibodeau, R., & Jorgensen, R. S. (2011). Shame, guilt, and depressive symptom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7*, 68-96.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2). Thoughts on narcissism and narcissistic rage.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7*, 360-390.
- Lansky, M. R. (1999). Shame and the idea of a central affect. *Psychoanalytic Inquiry*, *19*, 347-361.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ann, M. (2010). Shame veiled and unveiled: The shame effect and its re-emergence in the clinical setting.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70*, 270-281.
- Marschall, D., Sanfter, J., & Tangney, J. P. (1994). *The State Shame and Guilt Scale*. George Mason University, Fairfax, VA.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McGraw-Hill.
- O'Conner, B. P. (2000). SPSS and SAS program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using parallel analysis and Velicer's MAP test.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2*, 396-402.
- Piers, G., & Singer, M. B. (1953/1971). Shame. In H. Morris (Ed.), *Guilt and Shame*.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üsch, N., Lieb, K., Göttler, I., Hermann, C., Schramm, E., Richter, H., Jacob, G. A., Corrigan, P. W., & Bohus, M. (2007). Shame and implicit self-concept in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4*, 500-508.
- Sandquist, K., Grenyer, B. F. S., & Caputi, P. (2009). The relation of early environmental experience to shame and self-criticism: Psychological pathways to depression. *The Australian Psychology Society, Proceeding of the 44th APS Annual Conference*, 161-166. <http://ro.uow.edu.au/cgi/viewcontent.cgi?article=1394&context=hbspapers>에서 2013, 10, 17 자료 얻음.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Street, A. E., & Arias, I. (2001). Psychological abus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Examining the roles of shame and guilt. *Violence and Victims*, *16*, 65-78.
- Sugarman, A. (1995). Psychoanalysis: Treatment of Conflict or Deficit? *Psychoanalytic Psychology*, *12*(1), 55-70.
- Tangney, J. P. (1996).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34*, 741-754.
- Tangney, J. P., Burggraf, S. A., & Wagner, P. E. (1995). Shame-proneness, guilt-proneness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J. P. Tangney &

- K. W. Fisc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pp. 343-367).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Tangney, J. P., Wagner, P. E., & Gramzow, R. (1989).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TOSCA)*. George Mason University, Fair Fax, VA.
- Tangney, J. P., Miller, R. S., Flicker, L., & Barlow, D. H. (1996). Are shame, guilt, and embarrassment distinct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256-1269.
- Willick, M. S. (1994). Working with Conflict and Deficit in Borderline and Narcissistic Pati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analysis*, 3, 377-393.
- 원 고 접 수 일 : 2014. 03. 11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9. 30
게 재 결 정 일 : 2014. 11. 26

K C I

A Validation Study of Korean Version of the Experience of Shame Scale(K-ESS)

Jaeun Shin Seolmin Kim Mi Yoo Jeon

Doo-Heum Park Seung-Ho Ryu Jee Hyun Ha Jaehak Yu

Department of Psychiatry,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Experience of Shame Scale(K-ESS). The questionnaires including K-ESS were administered to 200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howed a four factor structure with 21 items - "characteristic shame", "bodily shame", "shame of experience of failure" and "behavioral shame". 4 factors explained 53.63% of total variance of inventory. Based on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new respondents(N=248), 18 items were chosen as final items and the fit of the four-factor model were appropriate(Cronbach's alpha: .89). The K-ESS was found to have appropriate convergent validity with positive correlations with ISS and, SSGS and negative correlations with RSES. Additionally K-ESS exhibit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BDI and, STAI. In considering all results, K-ESS is expected to be used for exploration of relationship of shame and various psychological symptoms. limitations and issues are discussed.

Key words : shame, ESS, reliability, validity, factor analysis

부 록

부록. 한국판 수치심 경험 척도(K-ESS)

누구나 어떤 때이고 당황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때이든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에 드는 기분에 관한 것입니다. 옳거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해당되는 반응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 전혀 아니다 2 = 약간 그렇다 3 = 상당히 그렇다 4 = 심하게 그렇다

1. 자신의 개인적인 습관에 대해 수치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2. 자신의 개인적인 습관을 감추거나 숨기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3.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수치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4. 다른 사람에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5. 당신의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6. 자신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7.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8. 자신의 능력에 대해 수치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9.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사람들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10. 자신의 신체 혹은 신체 특정 부분에 대하여 수치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1.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하여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12. 자신의 신체 또는 신체 특정 부분을 숨기거나 감추길 원한 적이 있습니까?
13. 자신이 경쟁에서 실패했을 때 수치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4. 당신이 경쟁에서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15. 당신이 실패한 것을 보았던 사람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16.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수치스러움을 느낍니까?
17. 자신이 어리석은 말을 했을 때 수치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8. 자신이 어리석은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성격적 수치심 : 1-9 번 문항

신체적 수치심 : 10-12 번 문항

실패 경험 수치심 : 13-15 번 문항

행동적 수치심 : 16-18 번 문항